



한국 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평협소식 2007 제7호

서울시 중구 명동 2가 1번지 가톨릭회관 510호 TEL 02•777•2013, 778•7427 FAX 02•778•7427

http://clak.or.kr e-mail: clak@catholic.or.kr

발행일 : 2007. 3. 5 발행인 : 한홍순

## 한국평협 2월 10일 2007년 정기총회 열어

‘평신도사도직 정체성 확립’ 활동지표 내세워

평신도 교육·젊은이 복음화에 앞장서기로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한홍순,

지도 민병덕 신부)는 2월 10일 오후 3시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 7층 강당에서 제40차 정기총회를 열었다.

전국 각 교구평협 회장단과 회원단체장 등 70



▲ 총회에 참석한 한국평협 회장단, 각 교구평협 회장단, 단체장과 서울평협 임원들이 민병덕 지도신부와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 신는 순서 ☐

☐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

〈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대전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인천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수원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대구대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 청주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마산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안동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광주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전주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군중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전국 사도직 단체〉

☐ 한국가톨릭 군중후원회

☐ 가톨릭병원협회

☐ 가톨릭경제인회

☐ 꾸르실료 한국협의회

☐ 레지오 마리에 서울 세나투스

◎ 동정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총회에서 '평신도 사도직 정체성 확립'을 올해 활동 지표로 정한 한국평협은 사회 복음화를 위한 사도직 활동 차원에서 지난해 처음 개최한 사회포럼을 좀더 알찬 내용으로 꾸며 교회와 사회의 대화를 더욱 효과적으로 이끄는 한편 평신도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평협은 또 ▲평신도 교육 강화 ▲젊은이의 복음화 ▲제3기 인생에 대한 관심과 배려 ▲가정의 복음화 ▲문화의 복음화 ▲국제협력 강화 ▲교회와 사회의 대화 - 사회포럼 ▲사회사도직연구소 개설 ▲평협 40주년 준비 등 9개의 2007년도 중점사업을 확정 발표했다.

한국평협은 올 3월 중 산하 사회사도직연구소 주관으로 '평신도 신앙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젊은이 포럼'(9월)과 가난하고 소외받는 이웃과 함께 하는 현장체험 프로그램 형식의 '사회 포럼'(10월), 평신도사도직 관련 해외 전문가 초청 대강연회 등을 개최하기로 했다. 평협은 또 내년 창립 40주년을 앞두고 '평협 40주년 기념사업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으며, 대통령선거에 대비해 공명 선거캠페인도 전개하기로 했다.



▲ 한국평협 정기총회를 주재하고 있는 한홍순 회장과 민병덕 신부

이밖에 중점사업인 '평신도 교육 강화'와 관련, 네 차례 계획돼 있는 상임위원회 기간 중 교육과 세미나를 여는 것을 비롯해 사회사도직을 위한 세미나와 부모에 의한(성·생명) 혼인 교육을 실시하고 평신도 사도직 활성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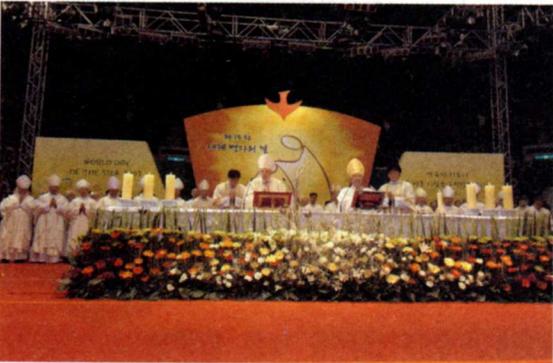
민병덕 신부는 이날 미사 강론을 통해 "오늘날 필요한 지도력은 위에서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 목소리에 항상 귀를 기울이면서 자신이 가진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부모와 같은 지도력"이라면서 그와 같은 지도력의 모범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따르는 데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인천교구 평협 최중우(요한)회장이 인천교구 미래사목연구소장 차동엽 신부가 지은 <무지개 원리>를 참석자들에게 기증하였다.

이 책은 요즈음 서점가의 '종교부문 서적 베스트셀러'로 많은 이들에게 읽히고 있다.

## 한국평협 총회 참석자들 '세계병자의 날' 서울대회 장엄미사 참석

한국평협 2007년도 정기총회 참석자들은 연중 제6주일이며 세계병자의 날인 2월 11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봉헌된 '제15차 세계 병자의 날' 폐막 장엄미사에 참석했다. 교황청과 전 세계 가톨릭 신자들이 질병으로 고통 받는 모든 병자와 가족, 그들을 돌보는 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세계병자의 날 장엄미사는 교황 베네딕토 16세의 특사 하비에르 로사노 바라칸 추기경(교황청 보건사목평의회 의장)의 주례와 김수환·정진석 추기경, 교황대사 에밀 폴 체



▼ (위) 미사 중 병자성사를 집전하고 있는 바라간 추기경  
▲ (아래) 장엄미사를 집전하는 바라간 추기경과 주교단

릭 대주교, 광주대교구장 최창무 대주교, 대구 대교구 부교구장 최영수 대주교,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장 장익 주교(춘천교구장)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유홍식 주교(대전교구장)를 비롯한 성직자, 수도자와 병자를 포함한 신자 등 6천 여명이 함께 했다.

하루 전 2월 10일 2007년도 정기총회에 참석한 한국평협 회장단과 임원진, 각 교구평협 회장단, 전국 단체장 등은 이날 저녁 장축체육관에서 열린 '젊은이와 함께 하는 세계병자의 날' 행사에도 참석했다.

'세계 병자의 날'은 전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1992년 제정한 날로서, 1858년 프랑스 남부 루르드지방에 성모가 나타난 날(루르드의 복되신 성모 마리아 축일)을 기념일로 삼았다.

성모가 발현한 후 루르드지방의 샘물에선 질병 치유의 기적이 일어났다. 요한 바오로 2세는 평소 중요하고 어려운 일이 닥치면 병자와 어린이들에게 기도를 부탁했다고 한다. 그만큼 병자들의 간절함과 어린이들의 순수함을 높이 평가한 것이다. 교황청은 1993년 루르드에서 첫 행사를 가진 이후 매년 각 대륙을 순회하며 세계병자의 날 행사를 갖고 있다.

서울에서 처음 열린 이번 '세계 병자의 날' 행사는 지난 9일 개막미사를 시작으로 학술세미나와 '청소년과 함께 하는 병자의 날' 등이 열렸다.

이번 서울대회 하이라이트인 11일 장엄미사를 우리말로 봉헌한 바라간 추기경은 한국의 병자와 장애우에게 직접 '병자성사(病者聖事)'를 집전했다. 이날 미사에서는 체육관 바닥을 가득 메우고 있던 환자와 장애우 660여 명이 바라간 추기경과 정진석 추기경과성직자 30여 명으로부터 병자성사를 받았다.

바라간 추기경은 강론을 통해 "종종 사람들은 난치병 환자들이나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는 이들을 무의미한 존재로, 즉 살 가치가 없는 존재로 생각하도록 여론을 몰아가곤 한다"며 안락사 지지론자를 비판했다. 그는 특히 "질병과 행복은 공존할 수 있는 것"이라며 "그리스도의 고통에 일치된 여러분들의 고통은 교회와 세상에 필요한 결실을 맺게 해줄 것임을 믿으십시오"라고 병자를 위로했다.

정진석 추기경은 미사를 마치기 전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병자 여러분들께도 위로와 격려의 박수를 보내자"고 말했다.

한편 한국평협 한홍순 회장은 이번 세계병자

의 날 서울대회 준비위원회 총괄 기획위원으로 참여해 행사준비는 물론 행사기간 중 교황특사 바라간 추기경을 수행하는 등 여러 분야에서 봉사했으며 한국평협 최홍준 사무총장은 장엄



▲ 앉은자리 왼쪽부터 헤비에르 로사노 바라간 추기경, 유희식 주교, 호세 레드리도 주교, 뒷줄 오른쪽부터 안토니오 소토 몬시뇰, 한홍순 회장, 교황대사 에밀 폴 체릭 대주교

미사 등 행사대본 작성과 진행을 맡았다.

이 밖에 한국평협은 이번 세계병자의 날 서울대회 홍보를 위해 1월 29일 강남 성모병원 가톨릭대 성의교정 교수회의실에서 준비위원장 최영식 신부, 부위원장 한영만 신부 등 총괄기획팀과 함께 신자 중견 언론인 간담회를 열었으며, 2월 1일에는 프레스센터에서 제15차 세계병자의 날 대회장 유희식 주교(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장)와 최영식 신부, 한영만 신부, 한홍순 회장, 최홍준 총장 등이 각 언론사 문화부 종교담당 기자들과 간담회를 열기도 했다.

이번 세계병자의 날 홍보에 적극 이바지한 신자 중견 언론인들은 한국평협 김홍 부회장(가톨릭언론인협의회 회장, KBS 부사장)을 비롯해서 강동순(방송위원회 상임위원, 전 KBS 감사), 김지영(UCIP회장, 신문윤리위원회 심의위원, 전 경향신문 편집인), 최홍운(한국언론재단 이사, 전 가톨릭언론인회 회장, 전 서울신문 논

설실장) 서울평협 자문위원과 부회장 이윤자(평화방송 신문국장), 한국평협 홍보분과위원장 유연채(KBS 보도본부 시사보도팀장), 서울평협 홍보분과부위원장 황진선(서울신문 교우회장, 서울신문 편집국 수석부국장), 가톨릭 언론인회 오광성(SIGNIS 회장, 한국케이블TV 협회회장), 김일동(동아일보 교우회장, 동아일보 기획위원), 김태식(연합뉴스 교우회장, 연합뉴스 외국어뉴스국 부국장), 서기철(한겨레신문 교우회장, 한겨레신문 공정관리팀장), 심언준(경향신문 교우회장, 경향신문 사옥재개발본부부장), 정해영(조선일보 교우회장, 조선일보 총무국장), 손규현(MBC 교우회장) 이찬휘(SBS 교우회장, 보도국 문화과학부장) 회장 등이다.

#### 한국평협 회장단 · 각 교구 회장 간담회

한국평협 한홍순회장을 비롯한 회장단과 각 교구평협 회장 간담회가 3월 3일 낮 12시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 한국평협 회의실에서 열렸다. 한홍순 회장과 오덕주 부회장, 정기수 부회장(광주평협 회장), 서동호 감사(전주회장), 김승선 춘천회장, 최중우 인천회장, 윤봉옥 원주회장, 정영근 청주회장, 송상순 제주회장 등이 함께 한 이날 간담회에서는 올해 상임위원회 모임을 5월 전주, 9월 서울(주교회의 평신도사도직위원회와 함께 하는 세미나 겸), 10월 원주, 11월 광주에서 개최하고 '우리 성가 작곡 공모' 마감이 4월 말로 다가옴에 따라 각 교구 평협에서 홍보에 힘쓰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는 또 전주에서 열리는 1차 상임위원회(5월 26일~27일)에서 전주교구장 이병호 주교의 강의를 듣고 '한국평협사(韓國平協

史)에서 본 평협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장달은 국제 석학 초청행사를 올해는 꼭 실천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해마다 총회 때 직전 상임위원들에게 전달해온 '감사패'를 올해부터 '감사장'으로 바꾸게 된 사실을 확인하고, 앞으로는 성과와 같은 기념품을 아울러 전달하는 문제 등을 논의했다.

### 신임 사무국장에 유영훈씨



한국평협 한홍순 회장은 평협 사무국장에 유영훈(39, 스테파노, 서울대교구 신사동본당)씨를 금년 1월 1일자로 임명했다. 모태

신앙을 지닌 유씨는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석사학위를 받고 현재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경영컨설팅 석사과정을 공부하고 있으며, 사회복지법인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와 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에서 과장으로 재직한 바 있다. 유 사무국장은 서울대교구 평협 사무국장직도 함께 맡았다. 한국평협과 서울평협 사무국장은 지난 2005년 8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최홍준 사무총장이 겸임해왔다.

현재 평협 사무국에는 최홍준(파비아노) 사무총장과 유영훈 사무국장 외에 신동수(세라피나), 계획울(마리아) 자매가 근무하고 있다.

##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제37차 서울평협 정기총회 열려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한홍순, 지도 민병덕 신부)는 지난 1월 20일 오후 2시 가톨릭회관 7층 강당에서 제37차 정기총회를 열었다. 이날 총회에서 '신앙성숙을 위한 성인 교육 강화', '가정사도직 활성화', '사회사도직 활성화', '선교활동 강화', '생명문화 창달', '문화의 복음화' 등 2007년도 중점사업을 확정하면서 그동안 실시한 교육과정들을 '평신도학교'라는 이름으로 묶어 평신도 교육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평신도학교는 '공의회 과정', '제3기 하상신앙대학', '선교포럼', '여성지도자교육', '정의 평화토론회', '가정문제워크숍', '사회교리학교' 등 모두 7개 과정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 참석자들이 미사에 이은 본회의를 마치고 지도사제인 민병덕 신부(복음)를 받고 있다.

또한 중점사업의 하나인 '문화의 복음화'와 관련해 지난해에 이어 우리 성가 노랫말을 공모하고, 입상한 노랫말로 곡을 만들기 위한 작곡 공모를 통해 새로운 우리 성가를 만들고 보급하는 등 전례 토착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

기로 했다.

작년부터 이름을 바꾸면서 새롭게 활동을 재개한 사회사도직연구소는 올해 상반기 중에 평신도 신앙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는 세미나를 예정하고 있으며, 내년으로 다가온 평협 40주년 기념사업 준비를 기획분과와 지구분과와 함께 진행하게 된다.

### 사회사도직연구소 전국 단위로 활동영역 넓혀

사회사도직연구소(소장 오병선)는 올해 서울 평협 정기총회의 회칙개정 절차를 통해 '가정·사회사목연구소'에서 '사회사도직연구소'로 이름을 바꾼데 이어 한국평협의 총회를 통해 명실공히 전국단위의 연구소로 거듭나게 되었다. 이에 그동안 진행되고 있던 평신도 신앙실태 조사를 전국단위로 확대 실시하기로 하고, 내년 평협 40주년 기념사업도 계획해나가기로 했다. 그 가운데 하나로 내년 상반기에 40년간의 평신도 활동을 정리하는 '평신도 백서'를 발간하기로 하고, 기초 자료집 제작을 올 여름까지 완결하는 것을 목표로 자료발굴과 수집에 들어갔다.

### 제3회 가정 세미나 '창조 안에 나타난 가정 생명' 개최

서울평협에서는 가정분과위원회(위원장 오현희)의 주관으로 지난 2월 24일 오후 서울 명동의 가톨릭회관 7층 강당에서 제3회 가정 세미나를 개최했다. 120여 명의 신자들과 함께 한 이날 세미나는 '창조 안에 나타난 가정 생명'을 주제로 서울대교구 가정사목부의 장 레오



▲ 가정세미나 참석자들이 장 강사인 장레오 수녀의 강의에 경청하고 있다.

수녀가 창세기에서 나타나는 하느님의 창조 사건과 생명의 눈으로 바라보는 가정의 소중함, 그리고 상처의 치유에 대해 강의하고, 행복한 가정운동의 이숙희 데레사 회장의 진행으로 용서와 화해하는 가정의 사례를 나누며 스스로를 봉헌하는 편지를 작성하고, 작성한 편지와 초를 미사 중에 봉헌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미사는 서울대교구 사목국의 가정사목담당인 김완석 신부의 집전으로 낙태치유미사로 봉헌됐다.

### 서울평협 '공의회 과정' 수강생 모집

3월 20일부터 매주 화요일 30회 실시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는 2007년도 평신도학교 '공의회과정'을 개설하고 수강생을 모집한다.

'공의회 과정'은 서울평협이 올해 중점사업으로 내세운 평신도교육의 하나로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역사와 의미, 배경을 살펴보고 공의회에 담긴 교회 가르침을 배울 수 있는 교육 과정으로 진행된다.

서울평협은 공의회 과정 개설 취지문에서 "세상의 복잡한 문제들에 직면해 자신의 희망에

근거를 부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교리교육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면서 "이에 우리는 제2차 바티칸공의회 가르침을 배우는 평신도학교 공의회 과정을 개설한다"고 밝히고 있다.

3월 20일 개강하는 공의회 과정은 1·2학기 총 30회에 걸쳐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에서 열린다. 1학기에는 '보편공의회 의미와 역사', '제2차 바티칸공의회 배경과 의의', '계시헌장', '전례헌

장', '교회헌장', '제2차 바티칸공의회 인간관·구원론·성사론' 주제 강의가 마련된다. 이어 9월 4일 개강하는 2학기에는 '주교교령', '평신도교령', '그리스도인 교육 선언', '종교자유 선언', '제2차 바티칸공의회 정신과 한국교회' 주제 강의를 열린다.

수도자와 본당 사목회장, 사목회 임원, 구역장, 단체장, 공의회에 관심을 갖고 있는 신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수강료는 학기당 10만원(수도자 7만원)이다. 300명 선착순 마감.

서울평협은 공의회과정 수강 신청자들에게 올해 주최하는 각종 교육의 수강료를 할인해주며 평협이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 초대한다.

**평신도학교 공의회과정 운영일정**

1) 1학기(매주 화요일 15주간) 19:30~21:30

일 자	내 용	강 사	장 소
3/20	보편공의회 의미와 역사	김성태 신부	가톨릭회관
3/27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배경과 의의	김성태 신부	7층 강당
4/3	계시헌장 I	조규만 주교	
4/10	계시헌장 II	조규만 주교	
4/17	교회헌장 I	김영국 신부	가톨릭회관
4/24	교회헌장 II	김영국 신부	7층 강당
5/1	전례헌장 I	정의철 신부	
5/8	전례헌장 II	정의철 신부	
5/15	사목헌장 I	민병덕 신부	가톨릭회관
5/22	사목헌장 II	민병덕 신부	7층 강당
5/29	제2차 바티칸공의회 인간관	박준양 신부	
6/5	제2차 바티칸공의회 구원론	박준양 신부	
6/12	제2차 바티칸공의회 성사론	손희송 신부	가톨릭회관
6/19	제2차 바티칸공의회 마리아론	손희송 신부	7층 강당
6/26	1학기 수료식, 종합토론	민병덕 신부, 한홍순 교수	

2) 2학기(매주 화요일 15주간) 19:30~21:30

일 자	내 용	강 사	장 소
9/4	주교교령	조규만 주교	
9/11	사제 양성 교령	정의철 신부	
9/18	사제생활 교령	정의철 신부	
10/2	수도생활 교령	유수일 신부	
10/9	평신도 교령	한홍순 교수	
10/16	선교 교령	김준철 신부	가톨릭회관
10/23	사회 매체 교령	김영춘 신부	3층 강당
10/30	일치 교령	김영국 신부	
11/6	동방 교회 교령	박준양 신부	
11/13	비그리스도교 선언	박준양 신부	
11/20	그리스도인 교육 선언	미정	
11/27	종교 자유	한홍순 교수	
12/4	제2차 바티칸공의회 정신에 입각한 종교간 대화	노길영 교수	
12/11	제2차 바티칸공의회 정신과 한국교회	미정	
12/18	2학기 수료식, 종합토론, 1기 수료생 졸업식	민병덕 신부, 한홍순 교수	

**서울대교구 가톨릭여성연합회 권경수 교수를 신임회장으로 선출**



서울대교구 가톨릭여성연합회는 1월 23일 제41차 정기총회에서 제25대 회장으로 권경수(헬렌) 교수를 선출했다.

권회장은 지난 해 2006년 이화여대 영문학 교수로 정년퇴임했으며 서울대교구 여성 꾸르실료 1차를 수료하고 30여 차례에 걸쳐 여성 꾸르실료 교육 회장으로 봉사했다. 권경수 회장은 이날 "정보화·세계화 시대로 불리는 21세기는 Female(여성), Fashion(유행), Feeling(감성)의 3F 시대로 여성의 자질과 능력이 역동적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특히 양성평등을 지향하는 이 시대에 여성 스스로 양성함양을 위해 노력하고 보다 적극적인 대사회활동을 펼쳐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나눔과 섬김의 정신에 바탕을 둔 가톨릭

릭여성지도자를 양성하는데 주력하고 세대간, 단체간의 적극적인 교류를 통해 여성연합회의 지평을 더욱 넓혀 나갈 계획이다.

### 여성연합회, 강완숙 연구서 출판

서울대교구 가톨릭여성연합회(회장 권경수 헬렌, 지도신부 민병덕 비오)는 1월 23일 12시 만남의 방에서 염수정 서울대교구 총대리 주교, 민병덕 지도신부 및 교회관계자, 회원들을 모시고 강완숙(골롬바 : 1760-1801) 순교자의 선구자적 삶을 담은 연구서 『순교자 강완숙, 역사를 위해 일어서다』 출판기념식을 가졌다.

여성연합회는 한국교회 최초로 여성으로서 평신도 회장직분을 수행했던 강완숙 순교자의 빛나는 순교영성과 탁월한 지도력을 더욱 널리 알리고자 그간 강완숙 심포지엄, 강완숙 순교



▲ 출판기념회에서 염수정 주교, 민병덕 지도신부, 권경숙 회장, 오덕주 전회장이 축하떡을 자르고 있다.

자 시복시성을 위한 전례무용 공연, 강완숙 강학회 등을 개최해 왔으며 강완숙 순교자를 오늘날 모든 신앙인의 귀감으로 삼고자 4명의 전문가 -조광(고려대 사학과), 장정란(가톨릭문화여성대학원), 김정숙(영남대 국사학) 교수와 송종례 수녀(가톨릭대)를 초청해 '한국사 사료가 전하는 강완숙', '조선여성 강완숙이 받아들인 천주교', '강완숙의 천주교 활동 배경에

관한 연구', '하느님께 사로잡힌 조선 여인, 강완숙' 을 주제로 강완숙의 영성을 보다 심층적으로 다루었다.

### 서울 운전기사 사도회 창립 23돌

서울대교구 가톨릭 운전기사사도회(총회장 우종석 마르티노, 지도신부 민병덕 비오)는 2월 22일 서울 중구 명동성당 고프스트홀에서 민병덕 신부 주례로 창립 23주년 기념미사를 봉헌하고, 봉사과 선교에 더욱 정진하기로 다짐했다. 민병덕 신부는 미사 강론에서 "사도회 회원들은 봉사와 모금에 앞장서 언제나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이었다"고 치하한 뒤 "즐거운 마음으로 봉사하는 삶을 통해 남에게 모범이 돼 선교에도 큰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서울대교구 평협 한홍순(토마스) 회장은 축사에서 "운전기사 사도회 회원들은 '핸들 잡은 예수' 라는 별칭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생활현장에서 동행하는 손님들을 또 다른 예수님 대하듯 여겨 교회 발전에 큰 공을 세웠다"고 그동안의 공로를 치하했다.

사도회 우종석 총회장은 답사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투철한 희생정신으로 봉사에 참여해준 회원들께 감사를 드린다"며 "올해에도 겸손한 마음과 희생정신으로 더욱 정진해 사회 빛과 소금이 돼 달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창립 23주년 기념미사에 이어 △전 총회장 및 총무부장 공로패 수여식 △불우 이웃돕기 성금모금 우수자 및 우수 봉사자 표창 △나눔 순서로 진행됐으며, 한국 가톨릭 운전기사사도회 김병호(스테파노) 회장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운전기사사도회 창립미사는 2년마다 열리며 2009년에는 창립 25주년을 기념해 열릴 예정이다.

## 대전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대전교구 평협 새 회장에 김윤성 형제 뽑아

대전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김명중 빈첸시오 페레르, 지도신부 박종우 안드레아)는 지난 3월 3일 충남 연기군 전의면 신방리 정하상교육회관에서 교구 내 68개 본당에서 온 180명의 회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제37차 정기총회를 열어 제 20대 평협 회장에 김윤성 요한 비안네 형제를 선임하고 2006년 사업과 결산, 그리고 2007년 사업과 예산을 승인받은 후 평협 회칙을 개정했다.

임원선출을 하기에 앞서 회장단과 지도신부로 구성된 '20대 회장 추대위원회'를 구성해 의논을 하는 사이 참석자들은 훌륭한 회장이 선출될 수 있도록 성모님의 전구를 바라는 묵주기도를 바쳤다. 약 20여 분 뒤 추대위원회에서는 김윤성 형제를 회장으로 추대한다고 발표했다. 참석자들은 박수로 환영하고 이어서 지구대표 부회장과 단체 대표 부회장, 감사를 뽑기 위한 투표가 시작됐다. 미리 마련된 투표용지에 정성껏 투표를 한 결과 지구대표부회장에는 남부지구회장 김석성 블라시오, 서산지구회장 정종문 세자요한, 차점자인 서부지구회장 김홍거 세자요한과 천안서부지구 회장 이경식 마르코가 감사로 선출됐다. 그러나 서산지구회장이 거리상의 문제를 들어 천안서부지구회장에게

부회장직을 맡으면 어떻겠느냐고 양해를 구해 천안서부지구회장이 이를 수락했다. 임명된 최종 명단은 다음과 같다.

제 20대 회장 : 김윤성 요한비안네 (문산동성당), 부회장 : 김석성 블라시오 (대전, 논산지구 대표, 관저동 성당) · 이경식 마르코 (기타지구 대표, 천안 쌍용동 성당) · 이석구 대건안드레아 레지아 단장(단체 대표, 탄방동 성당), 감사 : 김홍거 세자요한 (탄방동 성당) · 정종문 세자요한 (서산 동문동 성당)

## 인천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평화의 날 미사와 신년하례식

### 송해봉 세례자 요한의 시복시성 추진위원회 발족

인천교구 평협(회장 최중우 사도요한, 지도신부 최상진 야고보) 회장단과 임원들은 1월 2일 오전 11시 답동 주교좌 본당에서 세계 평화의 날 미사와 인천교구 신년하례식에 참석했다.

교구장 최기산 주교는 교황 베네딕토 16세 성하의 평화의 날 담화를 인용하여 “폭력과 무력으로 고통 받는 이들에게 평화를 빌며, 새해에는 정의와 평화를 위한 세상이 되기를 희망하며, 교구 설정 50주년 기념 주교좌성당 건립을 위해 많은 기도와 관심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미사 후 가톨릭 회관



▲ 인천교구 평화의 날 미사

에서 이어진 교구 신년교례회에서는 사제, 수도자, 교구 평협, 각 단체 대표들이 교구장과 김병상·이학노 몬시뇰에게 새배를 올리며 새해 인사를 나누었다.

인천교구는 이날 평신도 선교사로서 많은 이들에게 하느님을 전하고 순교자적 죽음을 맞이한 '송해봉 세례자 요한의 시복시성 추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세계평화의 날 미사 중 임명장을 수여했다. 1926년 계양면에서 출생한 송해봉 세례자 요한은 계양구 굴현동 고촌은 행정 마을에서 야학을 운영하며 전교 활동을 펼쳤다. 열심한 그의 활동은 가는 곳마다 남녀 노소를 막론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도록 변화시켰다. 그러다 1950년 6·25전쟁 당시 천주교가 동네에 전파되는데 반감을 가진 주민 일가의 밀고로 빵쟁이로 몰려 총살형을 당하였다. 시복시성 청구인 차동엽 신부가 소장하고 있는 미래사목연구소에서는 오래전부터 송해봉의 업적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그의 전교활동을 엮어 '스물넷, 못다 사른 불꽃'이라는 전기를 발간한 바 있다. 시복시성 추진위원회에서는 발굴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추가 연구와 심사를 거쳐 교황청에 공식적으로 시복시성을 청원할 예정이다.

### 새 반장학교 개최

인천교구 각 본당에서 새로 임명된 구·반장들을 위한 2007 새반장 학교가 교구 사목국(국장=최상진 신부) 주관으로 1월 23~24일 주안1동 성당에서 열렸다. 60개 본당 700여 명의 새 반장들이 참가한 가운데 23일에는 구역·반장의 역할과 자세, 구역·반장과 교회행정, 24일



▲ 인천교구 새 반장학교에 참석한 신임 구·반장들

에는 성사 생활과 복음화, 소공동체 모임과 교재 활용 등의 강의와 파견미사로 이루어졌다.

또한 사목국은 2월 23일(금) 김포성당에서 김포·강화지구 새 반장들을 위한 학교를 실시한다.

### 수원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수원 평협 임원들, 신년하례식 참석

1월 2일 정자동 주교좌 성당에서 교구장 최덕기(바오로) 주교와 총대리 이용훈(마티아) 보좌주교를 비롯한 교구 사제단과 수도자, 본당 총회장, 교구 단위 단체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2007년 수원교구 신년하례식이 있었다.

2007년 새해를 맞이하여 열린 이번 신년하례식에서 교구장은 강론을 통해 복음화에 대한 반성의 의미로 교우 개개인의 성화와 소공동체, 청소년 활성화가 잘 이루어졌는지를 되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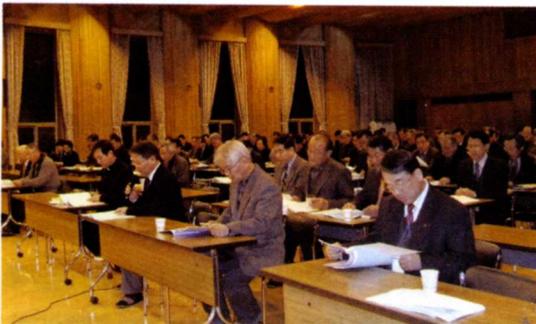
▲ 수원교구 신년하례식 미사

었다.

2006년 사목 목표로 대리구제 성공을 위한 노력, 가정의 성화, 한마음 운동의 정착을 들었고, 특히 공명선거운동을 통해 대통령 선거 참여와 공정한 선거 유도 등을 위해 힘써주기를 당부했다. 또한 새로운 변화에 적극 따라준 교구의 모든 사제, 수도자, 평신도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으며 앞으로도 새로운 체제가 자리 잡도록 함께 노력해주길 당부했다. 이날 신년하례식에는 교구평협 안병철 도미니코 회장을 비롯한 많은 본당 총회장이 참석했고, 안 회장은 교구 성직자, 수도자 대표와 함께 평신도를 대표하여 교구장과 신년인사를 나눴다.

### 2007년도 상반기 총회장 연수

매년 상·하반기에 한 번씩 연2회 개최되는 수원교구 내 본당 총회장 연수가 1월 20~21일, 150여 명의 총회장과 평협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아론의 집에서 열렸다. 연수 첫날인 20일에는 말씀의 전례와 지도신부인 문희중 세례자 요한 복음화국장 신부의 '수원교구는 평신도 교회'라는 주제의 강의, 대리구별 모임, 저녁기도, 공연관람, 친교의 시간 등으로 구성된 알찬 일정을 마쳤다. 특



▲ 수원교구 평협 총회장 연수에 참석한 본당 총회장과 평협 임원

히 대리구별 모임에서는 새로이 실시된 대리구제에 따른 현안들이 논의됐다.

연수 둘째 날에는 기도와 묵상, 묵주기도로 아침을 시작했고, 교구장의 2007년도 사목방향을 경청했다. 총회장 연수의 핵심인 '교구장님과의 대화' 후에는 교구장 집전 미사가 봉헌됐다. 교구장 최덕기 주교는 본당 총회장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더욱 적극적인 교회참여를 당부했다. 2000년부터 2006년까지의 복음화 분석 자료를 살펴본 결과에 대해서는 소공동체 활동은 꾸준한 발전이 있는 것으로 결과가 나타났고 세례율과 성소자가 늘고, 냉담자가 줄어드는 등 발전을 하여 매우 고무적이라는 평가를 내렸으나 구역장, 반장의 면직률이 높은 것에 대해 우려했다. 또한 청소년 활성화에 대해 당사자인 청소년들은 변화가 없다고 답한 것에 주목하면서 이는 교회 청소년 활동이 청소년 주도적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따라서 청소년이 자치활동을 통해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틀을 만들어줄 것도 당부했다.

또한 대리구제의 성공, '소공동체 활성화'와 '청소년 활성화'를 위한 가정성화, '한마음 운동'의 정착, 공명선거운동을 2007년도의 사목 목표로 제시하고, 그 외에도 지역사회 복음화와 지속적인 성소계발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하반기 본당 총회장 연수는 2007년 7월 21~22일 아론의 집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 수원평협 소식지 월간 '수원평협소식' 창간

수원교구 평협(회장 안병철 도미니코, 지도신부 문희중 세례자 요한)에서는 본당과 각 대리구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서로 알리고,

유익한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본당은 물론 대리구와 교구의 발전에 도움이 되기 위해 평협 소식지인 '수원평협소식' 창간호를 1월 31일 발간했다. '수원평협소식'은 교구평협과 대리구평협의 정보교환은 물론, 각 본당 총회장과 단체장들의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 자료와 탐방 기사를 실을 예정이며, 매월 말일 월간으로 발간된다.

### 평협과 제단체 사목방문

전년도의 활동내용 점검하고, 2007년도의 새로운 계획을 교구장에게 보고하는 '평협과 제단체 사목방문'이 2월 10일 오후 3시부터 교구청 지하대강당에서 있었다. 평협을 비롯한 교구 16개 단체의 임원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각 단체 대표들은 현안과 문제점, 활동계획 등에 대한 상세한 보고가 있었다.

교구장 최덕기 바오로 주교는 총평을 통해 각 단체의 실적과 계획에 대해 구체적인 지시와 격려로 방향을 제시했으며, 더욱 구체적이고 발전적인 계획을 수립할 것을 당부했다. (관련 내용 특집 참조) 또한 단체의 성과를 치하하며,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제 단체들에 대한 홍보가 미비함을 아쉬워하며 평협지 등을 통해 널리

알리기를 당부하였다. 또한 회원들이 매년 그해 목표를 잘 알리기 바란다고 하며, 회원 성화에 힘을 쓸 것을 강조했다.

지도신부인 복음화국장 문희중 요한 세레자 신부는 사회 전체를 대상으로 전개되는 '한마음 운동'에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하며, 신자가 아닌 사람들도 참여하도록 운동을 확산시켜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가정 성화를 위한 '성가정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대리구제 성공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당부했다.

### 대구대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 '남성 합창단' 교구평협 산하 단체로 등록

지난 1월 3일, 천주교 대구대교구 가톨릭 남성 합창단(약칭 Fili Cantores)이 교구장의 인준을 받아 교구평협 산하 단체로 등록됐다. 본 단체는 성가를 통해 여러 본당 전례에 도움을 주며 지역 문화발전 및 가톨릭신자들의 신앙생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두고, 천주교 신자 및 예비신자로 구성됐다.

### 청주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제30차 정기총회, 청주교구 설정 50주년 준비기로

청주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정영근, 지도신부 최광주 프란치스코)는 3월 3~4일 청주시 내덕동 교구 연수원에서 2007년 제30차 정기총회 겸 연수를 열어 교구 설정 50주년



▲ 수원교구장 최덕기 주교의 교구평협·제단체 사목방문

(2008년)을 맞아 올 한해 '주님께서 필요하시  
 합니다'를 주제로 선교에 온힘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평협은 3월부터 4개월간 5회  
 에 걸쳐 청주 가톨릭회관에서 각 본당 평협 임  
 원진에 대한 선교 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청주교구 평협은 이날 새해 교구장 사목교서  
 에 따른 실천방안과 시노드 '토론마당' 운영  
 방안 전반에 관해 논의했다. 특히 2008년까지  
 3년간 교구에서 추진 중인 '50실천운동'에 적  
 극 동참해 쉬는 신자를 50%로 줄이고 새 세례  
 자 수를 50% 끌어올리는 데 평신도들이 적극  
 참여하도록 독려키로 했다.



▲ 청주평협 정기총회 참석자들

63개 본당 중 47개 본당 평협 임원진과 18개  
 교구 활동단체장 등 모두 108명이 참가한 이번  
 총회 겸 연수회에서 평협 지도신부인 최광조  
 (교구 사목국장) 신부의 '교구장 사목목표 구  
 현을 위한 방안 모색' 주제 강의를 듣고 구체  
 적 실천방안을 모색했으며, 올해 진행될 시노  
 드 본회의 '토론마당' 운영방안에 대한 의견도  
 나눴다. 이와 함께 교구 설정 50돌을 맞아 발  
 간될 「청주교구 50주년사」 발간 준비 작업도  
 협의하고, △어르신 게이트볼 대회(4월, 충북  
 노인종합복지회관) △평신도 도보 성지순례(9  
 월, 문경새재-연풍성지) △찬미 예수님의 날  
 행사(10월,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 등 올해 사

업계획도 확정했다.

### 새 꾸르실리스타 112명 탄생

청주교구 꾸르실료(주간 구분옥 올리아 지도  
 신부 전명수 아브라함)는 청주교구 여성 57차  
 (1월 4일 - 7일)와 남성 59차(1월 11일 - 14일)  
 교육을 교구 연수원에서 실시하여 여성 67명,  
 남성 45명 등 모두 112명의 새 꾸르실리스타를  
 배출했다.

금년도 계획은 여성 58차와 남성 60차, 그리  
 고 제4차와 제5차 실버 꾸르실료 교육 계획이  
 있다.

### ME 주말 교육

ME청주협의회(대표부부 김재범 라우렌시  
 오·곽선귀 로사, 지도신부 박청일 에바리스  
 트)는 새해 들어 102차(1월 5일 - 7일), 103차  
 (2월 23일 - 25일) ME 주말 교육을 실시하여  
 36쌍의 새 ME 가족을 배출했다. ME청주협의  
 회는 앞으로 7번의 ME 주말 교육과 1번의 쉼  
 신 주말을 계획하고 있다.

### 교구 설정 50주년 기념사업으로 빈첸시오 에서 해외 지원 사업 전개

#### - 방글라데시에 양업 마을 건축 지원 -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 청주교구 이사회(회장  
 조광호 벨라도, 지도신부 김상수 블라시오)는  
 청주교구 설정 50주년 기념사업으로 해외 지  
 원 사업을 하고 있다. 방글라데시 디아푸르 교  
 구 내에 "양업마을"을 조성하여 가난하고 아버  
 지 없는 가정 50세대를 수용할 계획으로 주택  
 50채를 지을 수 있도록 2006년 12월에 지원금

을 보냈다.

1961년 우리나라 최초로 빈첸시오를 도입한 청주교구는 1960~70년대 뉴질랜드 빈첸시오회에서 도움을 받았던 역사를 기억하고 있으며, 그 도움에 보답하는 첫 사업으로 방글라데시에 양업 마을 조성 사업을 지원하기로 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양업 마을 준공은 금년 12월경으로 예정하고 있다.

### 공소 사도회 창립총회

청주교구 공소 사도회(회장 연구순 가롤로, 지도신부 최광조 프란치스코)가 2007년 2월 10일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정식 발족했다. 공소 사도회는 교구 사도직 학교 졸업생을 중심으로 1년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설립된 것이다.

지난 해 2월 11일, 첫 모임을 가진 이후 100여 명의 회원을 확보한 공소 사도회는 그동안 공소 현장 방문, 시노드 공소 열린마당 주관, 공소 회장단 연수 주관 등 충분한 준비를 거쳐 이날 창립총회를 열고 정식으로 발족했다. 사도직 학교 방학과제로, 공소 실태 조사를 실시했던 12기 졸업생을 주축으로 모인 회원들은 2006년 1년 동안 회원을 7개조로 편성하여 문의 성당 소속 문동 공소 방문을 시작으로 12개 공소를 방문하여 공소 현황을 체험하기도 했고, 2006년 7월 4일 부강본당 비룡공소에서 있었던 교구 시노드의 한 과정으로 실시한 공소 열린마당을 주관하여 공소 회장단의 신임을 얻었으며, 2007년 1월 18일부터 19일까지 교구 연수원에서 있었던 공소 회장단 연수를 주관하여 역시 공소 회장단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았다. 이들은 2007년 활동 계획으로 2개 공

소를 선정하여, 회원들의 공소 적응 훈련을 전개하면서 활동 분야 개척을 위한 노력을 하기로 했다.

### 마산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교구장 사목교서 연수와 정기총회

마산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박용기 필립보, 지도신부 유영봉 야고보)는 교구장 사목교서 연수와 정기총회를 1월 20~21일 양일간에 걸쳐 부곡 일성콘도 대연회장에서 1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유영봉 야고보 총대리신부의 첫 미사를 시작으로 지난 2004년부터 2006년 10월 40주년 기념경축대미사 까지 900일간의 긴 장정을 끝낸 WJC-32X의 시상도 있었다. 교구장 안명



▲ 마산교구장 사목지침 연수와 마산평협 정기총회

옥 주교가 직접 시상한 대상, 금상, 은상, 동상의 시상에는 무려 5,580만원의 상금과 상장이 수여되고 대상수상자들의 사례발표로 WJC-32X의 긴여정이 끝을 맺었다.

이제 새로운 목표인 VISION-1030을 완성하기 위해서 2010년까지의 대장정이 시작됐으며, 이어진 마산교구 각 지구장 사제들과 교구

청내의 각 국장신부들과의 만남의 시간이 있었고 교구장 사목지침 특강에 이어 WJC-32X 평가 및 VISION-1030의 실천방안이라는 주제로 박용기 필립보 평협회장의 주제발표와 각지구별 그룹토의가 이루어지고 구체적인 실천사항 발표가 있었다.

이번 총회는 WJC-32X를 마무리하고 VISION-1030을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한 안건들로 다루어졌으며 다음과 같은 결의문을 발표하며 총회를 마무리하였다.

**- 2007년도 교구평협 정기총회 결의문 -**

천주교 마산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는 교구 평협의 중장기 목표를 수립, 추진하고자 교구 각 본당 회장단과 단체장 모두의 뜻을 모아 VISION - 1030을 설정하여 2010년까지 신자율 10% 주일미사 참석율 30%을 달성할 것을 결의하고 다음과 같이 실천사항을 선포한다.

- 성체성사의 신비를 사는 신앙생활을 통해 사랑을 증거하는 교회로 거듭난다.
- 가정기도의 생활화로 가정교회를 바로 세운다.
- 냉담 예방 및 쉬는 교우 찾기 활동을 강화한다.
- 유아, 청소년 사목 활동을 강화하여 교회의 미래를 튼튼히 한다.
- 교회의 쇄신을 통하여 사회변화를 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안동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사목임원 연수회 개최**

안동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강희용,

지도신부 김학록 안셀모)는 3월 3~4일 경북 예천군 지보면 농은수련원에서 '우리는 이 터에서 기쁨 넘치는 하느님 나라를 일군다'라는 주제로 사목임원 연수회를 갖고, 시대 아픔에 동참하는 열린 교회 실현에 앞장서는 봉사자로 거듭날 것을 다짐했다.

교구 평협은 오는 2009년 교구 설정 40주년을 앞두고 △나는 기도를 정성되이 바칩니다 △나는 성경을 읽고 쓰고 묵상합니다 △나는 복음을 전합니다 △나는 어르신을 돕습니다 △나는 외국인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줍니다 △나는 자원봉사활동을 합니다 등 '40실천사항'에 대한 강의를 가졌다.

본당 사목임원과 교구 평협 상임위원, 교구 여러 단체장 등 130여명이 참석한 연수에서 교구장 권혁주 주교는 파견미사 강론에서 "본당 공동체 봉사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목임원들은 '40실천사항'을 지구, 본당, 공소, 단체, 개인 별로 열심히 구체적으로 실천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광주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제36차 교구평협 정기총회와 연수회**

광주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정기수 스테파노, 지도신부 황양주 안토니오)와 여성위원회(위원장 이미현 실비아, 지도신부 황양주 안토니오)가 공동으로 지난 1월 27일(토) 광주가톨릭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각 본당 사목협의회장, 여성부회장, 여성분과장, 교구단위 제 단체장 등 180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전에는 “함께 가는 파트너십”이라는 주제로 연수회를 가졌다. 강의 를 맡은 황양주 신부는 “모범적인 지도자란 다 스리는 것이 아니고, 지배하지 않고, 성령의 이 끄심으로 봉사하는 단순한 도구일 뿐이라고 말 했으며 최고의 지도자라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 도의 지도력을 본받아 안내하는 지도자, 힘 을 북돋아 주는 지도자, 희생 봉사하여 사랑을 나누어 주는 봉사자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 교구장 최창무 대주교와 광주평협 총회 참석자들

광주대교구 설정 70주년을 맞아 모두가 한마 음 한뜻으로 시작하자는 의미에서 교구 평협과 여성위원회가 함께 실시한 정기총회에서 평협 은 2007년도 사업계획으로 진정한 변화와 쇄 신을 통한 그리스도와 일치, 화합의 공동체, 이 웃사랑 실천, 가족이 함께 공부하고 선교하기 를 주요방침으로, 교구내의 제 단체와 유기적 인 협조 및 활성화, 각 본당 사목협의회 및 단 체임원 직무연수, 순교자 현양회 미사봉헌, 교 구민을 대상으로 영성강좌 등을 추진하기로 했 다. 한편 평협은 올해부터 교구장님께 드린 신 년하례와 정기총회를 겸하기로 하고 파견미사 후 교구장 최창무 대주교와의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 광주평협 제9호 발행

2006년 한 해 동안의 광주대교구 평협과 지구 및 제 단체들의 활동 사항과 더불어 성직자 수 도자들의 영성의 도움 말씀, 신자들의 신앙· 선교체험, 성지순례기 등을 한데 묶어 한권의 책으로 발간했다. ‘광주평협’ 회보는 매년 2,000부씩 인쇄해 교구 내 모든 본당에 배포해 평신도들의 신앙생활 을 한데 아우르는 구심점 역 할을 담당하고 있다.



## 교구평협 업무보고

2007년 2월 3일(토) 주교관 3층 회의실에서 황양주 안토니오 지도신부와 함께 교구장 최창 무 대주교께 교구평협 업무를 보고했다. 이번 업무보고회는 교구평협 전임원이 지난해에 이 어 두 번째보고하는 자리로 프리젠테이션을 통 해 2006년도 교구평협에서 추진했던 각종 사 업에 대한 결과와 2007년도에 추진해야할 주 요사업에 대해 정 기수 스 테 파 노 평협회장 의 보고 에 이어 교 구 장



▲ 주교관 3층 회의실에서 진행된 교구 평협 업무보고회

대주교의 격려말씀과 나눔의 자리를 가졌다.

나눔의 자리에서는 교구의 여러 모습과 신앙 생활에 대한 폭 넓은 이야기를 나누는 유익한 시간이 됐다.

## 지구평협 활동

교구설정 70주년을 맞이해 각 본당의 새로 임명된 사목협의회 임원과 단체의 장을 대상으로 임원연수회를 각 지구별로 실시했다.

연수회 내용 : 1. “교구설정 70주년과 신앙새신” - 김계홍 신부(70주년 사무국장)

2. “사목협의회 임원의 임무와 역할” - 황양

주 신부(사무국장)

3. “까리파스 운동의 필요성” -

이재술 신부

(호남동 주임)

4. 각 분과별 분임토의 및 발표

▷ 목포지구 / 1. 14 / 200명 / 산정동 레시오 100주년 기념관

▷ 서부지구 / 2. 4 / 120명 / 염주동성당

▷ 동부지구 / 2. 4 / 200명 / 봉선동성당

▷ 나주지구 / 2. 25 / 70명 / 나주순교자기념성당

## 전주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새터민과 함께하는 시간들

전주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서동호 바오로, 지도신부 조정오 요셉)는 1월 5일(금) 전주시내 거주자 새터민 12세대를 시내 평화동 왕뚜껍 회관에 초청해 조출한 저녁식사를 대접하면서 정든 고향과 가족을 떠나 자유의 땅에서 새 삶을 살고 있는 이들에 대한 고충을 함께

나누면서 위로의 시간들을 가진 후 노래방에도 같이 들러 휘파람, 아리랑 등의 가곡을 부르며 가족 같은 하루를 보냈다.

또한 2월 1일(목)에는 하나원 92기 배출자 새터민 20대~40대 100명을 전주 전동성당에서 교구 민족화해위원회와 합동으로 환영식을 갖고 이들을 교구내 3개 본당(평화동, 우림, 용머리성당)교우 가정에서 새터민 홈스테이(가정체험)를 하도록 했다. 이날 환영식에는 조민철 위원장 신부 외에 송하진 전주시장과 문규현 신부(평화동본당주임), 박동진 신부(도농사목전담), 서석희 신부(교구 홍보국장) 등이 참석했으며 이런 행사는 다른 어떤 종교나 민간단체에서도 실패한 가정체험을 유독 우리 천주교회에서만 성공하고 있다는 점이 높이 평가되고

있으며 이는 우리 전주교구는 박해 때나 이민의 시대에 다른 지역의 백성들

을 받아들인 경험이 있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평협 임원(상임, 운영 위원회) 워크숍

전주교구 평협은 2월 24일(토) 한강 이남에서 두 번째 오래된 성당인 수류성당 교육관에서 2007년 임원 워크숍을 가졌다. 말씀의 전례 및 성시간을 시작으로 평협 운영방안 및 사업 계획에 대한 전 임원들의 설명과 질의응답 그리



▲ 동부지구 연수회 참석자들



▲ 하나원 92기 배출자 새터민 초대 환영식

고 분임토의 후 친교시간을 가진 후 마무리했다. 이날 서동호 회장은 평협 운영방안으로 첫째 평협의 내부 행정력 강화와, 둘째 평협의 정체성 확립과 위상제고 방안으로 본당 지구 협의회와 제단체간의 유기적 연대를 강조하였으며, 셋째 평협의 대사회운동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였다.



▲ 전주평협 임원 워크숍에서 말씀의 전례로 시작하고 있다.

### 여성 연합회 정기총회

전주교구 여성연합회(회장 장옥희 실비아)에서는 2월 26일(월) 오전 교구청 회의실에서 제 18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조정오 총대리 신부의 특강에 이어 진행된 사업보고와 예결산승인 후 임원 선출이 있었는데 현 회장이 유임되는 것을 회원 만장일치로 동의 한 후 폐회했다.

### 군종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군종교구 육군사관학교 졸업미사

군종교구는 2월 28일 서울 노원구 공릉동 화랑대성당에서 교구장 이기현 주교와 군종사제단 공동으로 육군사관학교 졸업생 환송미사를

봉헌했다. 이기현 주교는 미사 강론에서 “졸업과 임관 이후에 새롭게 시작되는 여러분 인생을 하느님께 봉헌하자”며 “평화의 사도이자 가톨릭 신자 장교로서 부하들을 보호하고 어려움에 처할 때는 주님 안에서 힘을 내 극복하라”고 졸업생들에게 당부했다.

미사 후에 이어진 환송식에서는 신홍식 주임 신부가 졸업하는 생도들에게 성경책과 묵주를 선물했고 이찬현(안드레아, 3학년) 생도는 재학생을 대표해 환송사를 낭독했다. 이번에 임관한 육군사관학교 63기 생도들은 전체인원 218명 중 40%에 달하는 86명(예비신자 8명 포함)이 가톨릭 신자로, 다른 기수 평균인 27%보다 신자 비율이 월등히 높다. 이날 행사에는 군종교구 사제 10여 명을 비롯해 이성운(7지구장) 신부, 도일규(안드레아) 군종후원회장과 이재열(이나시오) 이나시오회장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한편 군종교구는 2월 22일 해군사관학교 졸업미사를 시작으로 7일까지 공군사관학교와 육군3사관학교, 간호사관학교 졸업생 환송미사를 각 성당에서 각 군 사제단 공동으로 봉헌했다.



▲ 육군사관학교 졸업생 환송미사에 입장하는 사제단

## 전국평협 회원 단체 소식

### 한국가톨릭군종후원회

#### 중앙회(서울지부) 임원단 이취임

이관진(베드로) 전임회장, 도일규(안드레아) 신임회장



▲ 신임 도일규 회장



▲ 전임 이관진 회장

한국가톨릭군종후원회 중앙회(서울지부)는 1월 2일(화) 군종교

구 국군중앙 주교좌성당에서 군종교구장 이기현 주교 주례로 시무미사 봉헌과 회장단 이취임식이 열렸다.

1970년 2월 설립하여 올해로 37주년을 지낸 군종후원회는 1987년부터 20년 간 군선교와 군사목을 위해 기도와 찬조 등으로 헌신해 온 이관진(베드로) 전임 회장의 활동으로 군종교구의 청년선교 성과에도 크게 기여했으며, 군종후원회의 안정적인 성장도 일구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도일규(안드레아, 예비역 육군대장) 신임회장은 1998년 육군 참모총장직에서 예편한 직후부터 지난 8년간 부회장으로 활동해 왔으며, 이날 봉헌된 시무미사에서 이기현 총재주교의 임명장을 받고 그 임무를 시작했다.

이임 : 이관진(베드로) 회장, 조순창(카시미로) 지도신부, 박애자(데레사)·조무자(에나타) 부회장, 허필수(아우구스티노) 감사

취임 : 도일규(안드레아) 회장, 윤병길(세례자 요한) 지도신부, 이창순(엘리사벳) 부회장, 김진섭(베네딕도) 감사

#### 2007년 전국총회 개최

한국가톨릭군종후원회(회장 도일규 안드레아, 지도신부 윤병길 세례자 요한)는 2월 14일 군종교구 국군중앙 주교좌성당에서 서울·대구·마산·부산·수원·인천·청주교구 등 전국 군종후원회 회장단과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7년도 전국총회를 개최하여 지난 한 해 동안의 활동결산과 새해의 예산 및 사업계획을 보고하고, 군선교와 복음화를 위한 효과적인 지원체계와 활동을 함께 논의했다.

이날 총회는 2007년 군종교구 사목지침인 “말씀으로 성장하는 해”에 병사들이 성경과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신약성경 지원을 계속하며, 군 성당 비치용 합본성경을 점진적으로 교체기로 하는 한편, 군종교구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육군 연무대성당 성전·교육관 건립금 모금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결의했다.

### 한국 가톨릭병원협회

#### 한국가톨릭의료협회 제74차 이사회

2006년 10월 실시 예정된 한국가톨릭의료협회 정기이사회가 2007년 2월 8일 오후 5시 로얄호텔 제이드홀에서 열렸다. 각 회원병원 별 회장 및 이사단 19명이 참석했으며 협회 회장 최영식 신부께서 기조인사를 통해 제15차 병자

의 날 취지와 중요성, 경과보고 주최기관인 한국가톨릭의료협회가 주축이 되어 준비하는 병자의 날 행사를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회원기관의 협조를 당부하고 정기 이사회 소집 배경 및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스마트카드 사업추진보고, 2007년도 해외의료지원사업 추진방안, SSM Health Care 연구결과 보고서 처리방안, 해외의료 지원을 위한 중고 의료기기 및 용품 수집, 협회 주관



▲ 가톨릭의료인협회 제74차 정기총회 본회의 장면  
세계 병자의 날 자체 행사 추진 여부 등의 사항에 대해 협의했다.

Ryan)와 파울라 프리드먼(Paula Friedman) 부회장을 초청, 경영성공 사례에 대한 특강과 가톨릭대학교 의료경영연구소에 의뢰한 연구결과 발표를 가졌다. 이번 세미나는 의료시장 개방 압력, 대기업의 의료시장 진출, 의료기관 간 경쟁 심화 등 의료 환경 변화를 앞두고 'SSM Health Care'의 선진 병원경영 기법을 도입하는 기회로 삼고자 마련했다. 가톨릭의료협회의 이번 정기세미나 행사에는 전국 회원병원의 중견 간부급 직원 및 보직자, 가톨릭의사협회, 가톨릭간호사협회, 가톨릭약사회 등 각 직능협회 회원 등 450여 명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 2006년도 2차 일본 성마리아 병원 연수

협회 회원병원에서 선발된 2006년도 성마리아병원 연수생 2진(강남성모병원 배성미 간호사 외 2명)이 2월 22일(목)부터 3월 3일(토)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연수를 시작했다. 주요 연수내용은 성마리아병원 원내 시설견학과 병원 소개, 회원병원 소개, 나가사키 원폭 자료관 및 하우스 텐버스 관광, 약품, 안전관리와 CT·3D-CT 및 방사선치료, 7진 종합검사, PCR를 이용한 미생물 분류 검 및 병원내 직무 연수 등이다.

## 한국 가톨릭 의료 협회 FY.06 정기세미나

한국가톨릭의료협회 2006년도 정기세미나가 2007년 2월 8일, 10일 양일간 명동 성당 코스트홀과 서울 세종호텔 세종홀에서 열렸다. 제15차 세계병자의 날 행사(2007.서울대회)와 같은 기간에 실시하게 되는 한국가톨릭의료협회 FY.'06 정기세미나는 병원 경영 선진 기법 도입을 취지로 미국 가톨릭 의료기관 경영자 초청하여 특강을 진행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미국의 대표적 가톨릭 의료기관인 'SSM Health Care'의 최고 경영자(CEO)인 메리 진 라이언 수녀(Sr. Mary Jean

## 한국 가톨릭경제인회

### 정기총회와신년교례회

한국가톨릭경제인회(회장 박광순 대건 안드레아, 지도신부 조군호 요셉)는 2월 3일 가톨릭



회관 강당에서 정기총회와 2007년 신년교례회를 개최했다.

75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이날 총회는 2006년 결산보고에 이어 2007년 사업계획과 예산보고의 순서로 진행돼 사회사목활동 강화, 각 교구 경제인회 설립 지원, 한국청년대회 지원과 회원 중강 등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경제인회는 2월 21일 명동 뱅커스클럽에서 회장단회의를 열었으며, 2월 23일에는 명동성당 별관에서 운영위원회 올해 첫 회합을 가졌다.

## 꾸르실료 한국협의회

### 제 38차(2007년) 정기총회 개최

꾸르실료 한국협의회(주간 심재기 바오로, 대표 지도신부 서유석 사동요한)는 2월 28일부터 3월 1일까지 경기도 남양주 한마음수련원에서 제 38차 총회를 열고 올해 꾸르실료 도입 40주년을 맞아 10월 3일 서울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한국 올뜨레야를 개최하기로 했다.

서울대교구 협의회를 비롯해 대구대교구, 광주대교구, 대전·마산·부산·청주·수원·인천·전주·춘천·원주·안동·제주·의정부 교구협의회가 참석한 이번 총회에서는 기본정신에 충실한 꾸르실료 운동의 모색과 전개를 목표로 40년간의 한국꾸르실료 운동을 평가하고, 꾸르실료 운동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새로운 방향 모색과 선언(전국 올뜨레야), 통일성 제고를 위한 전국 네트워크 구축, OMCC 등 국제 기구와의 연대강화 전략을 펴기로 했다.

## 레지오마리에 서울 무염시대 세나투스

### 레지아 단장 간담회 개최

서울 무염시대 세나투스(단장 팽종섭 그레고리오, 지도신부 윤병길 세례자 요한)는 1월 28일 오후 직속 레지아 단장 간담회를 열었다. 6개 교구 레지아 단장과 세나투스 5간부가 참석한 이날 간담회는 그동안 대화의 기회가 적었기 때문에 더욱 의미가 큰 자리였다. 윤병길 지도신부는 회의 첫머리에 레지오 마리에 월간지에 관해서 설명하고, 2008년도 활동수첩 제작 방향과 세나투스 주관 영성피정에 대해서도 설명한 다음, 참여를 희망하는 간부는 함께 피정하도록 하자고 말했다.

이어서 팽종섭 세나투스 단장의 사회로 진행된 간담회에서 교구 레지아 단장들은 각 교구 특성과 어려운 점에 대한 대책을 함께 의논했다. 단장들은 특히 영상교육자료 제작, 청소년 단원 육성을 위한 방안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리고 출판이 중단된 성모소일과의 문제, 레지오 활동가 테이프 제작의 필요성, 선교 대책 등을 연구를 희망하였다. 간담회는 간단한 저녁 식사로 마무리되었다. 간담회는 세나투스 간부와 교구 레지아 단장들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유익하고 즐거운 대화의 자리가 됐다.

### 청년 브레시디움 단장 교육

서울 무염시대 세나투스에서는 2월 3일부터 4일까지 의정부 한마음수련원에서 서울대교구 내 청년 브레시디움 단장 교육을 실시했다. 101명이 참석한 이번 교육의 개회미사에서 윤병길 지도신부는 “레지오를 하는 목적은 하나

의 도구 역할을 하고자 함이다. 함께 하는 시간에 성공과 실패의 대화를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배우는 시간이 되도록 하자"고 당부했다.

이어서 서울 무염시대 세나투스 한관섭(미카엘) 부단장이 브레시디움 단장의 역할을 주제로 강의하면서 "브레시디움 단장은 '임기 내에 무엇을 할 것인가?'의 목표를 설정하고 함께 봉사하는 간부와 단원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하며, 어렵고 힘들 때는 직책이 성화시킨다는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레지오 정신이 담긴 활동을 통해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며, 우리 자신의 성화를 위해서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분임토의 시간에는 청년 레지오의 행사의 종류 및 방법, 브레시디움 단장으로서 어려움과 해결방안에 대해 토의하고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청년을 위한 혼인교리를 주제로 두 번째 강의에 나선 윤병길 지도신부는 혼인성사의 중요성과 혼인을 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사항, 유효하고 합법적인 혼인을 구성하는 요소를 설명했다. 세 번째 강의는 서울 무염시대 세나투스 팽종섭 단장이 청년 단원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한 주제로, 기성세대와 청년세대와의 비교, 교회 내에서 청년의 위치 서울 대교구 시노드의 청년 사목을 위한 제안에 대해 강의했다.

파견미사에서 윤병길 지도신부는 "브레시디움 단장에게 주어진 일이 불편하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쁜 마음으로 실행하며, 언제나 진실 안에서 머물자."고 강조하였으며 참석한 청년 브레시디움 단장 전원은 안수를 받았고, 열심히 기도하고 활동하는 브레시디움을 위해 노력하는 단장이 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 한홍순 회장, 2008 시드니 세계청년대회 준비회의 참석

한국평협과 서울대교구 평협 한홍순 회장(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교황청평신도평의회 위원)은 3월 28일부터 4월 1일까지 로마 근교 로 까디빠에서 교황청 평신도평의회 주최로 열리는 2008 시드니 세계청년대회 준비를 위한 '국제 청년 포럼'에 초청 받아 3월 23일 출국, 4월 4일 귀국한다.

### 한홍순 회장, '간추린 사회교리' 확산 위한 아시아대륙회의 참석

한홍순 한국평협 회장은 1월 25일부터 27일까지 태국 방콕 반푸완 사목연수센터에서 열린 교황청 정의평화평의회 주최 "간추린 사회교리" 확산을 위한 아시아대륙 회의"에 참석했다.

아시아주교회의연합(FABC) 인간발전 사무국과 태국 주교회의가 주관한 이 회의에는 한홍순 회장 외에 비달(필리핀 세부대교구장), 민만팜(베트남 호치민대교구장) 추기경, 박정우(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신부와 아시아지역 사회교리 관계자 140여명이 참석해 상황을 이뤘다. 참석자들은 「간추린 사회교리」 발간 배경과 의미 등에 대한 마르티니 추기경(교황청 정의평화평의회 의장) 기조강연을 들은 데 이어 △새로운 복음화로 회두 △사랑의 문화에로 투신 △아시아에서 사랑의 하느님 이야기 하기 등 주제발표 및 토의 등을 통해 특별

히 아시아 상황에서 「간추린 사회교리」가 지니는 의의와 중요성을 거듭 확인했다.

### 한홍순 회장의 글 교황청 기관지 '로세르바 토레 로마노'에 실려

한홍순 한국평협 회장이 쓴 '세속화 시대의 윤리적 도전과 그리스도교적 응답 : 아시아 대륙의 사회 및 교회 상황'이라는 제목의 글이 교황청 기관지 '로세르바토레 로마노' (L'Osservatore Romano) 2월 21일자와 23일자에 각각 실렸다. 로마노지에 한국인이 쓴 글이 연이어 대대적으로 소개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한 회장은 21일자 글에서 아시아 대륙에서 벌어지고 있는 생명권과 종교자유 침해 상황 등을 소개하면서 해결책으로 사회교리 교육 강화와 국제적 연대를 제시했다. 23일자 글은 한국교회 급격한 교세 신장은 한국교회 순교자들의 용기와 증거를 토대로 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 이관진 한국평협 고문, 환주복지재단 설립

한국평협 고문 이관진 회장은 사회복지법인 환주복지재단을 설립해 이사장에 취임하고 2월 28일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 2층 재단 사무실(212호)에서 서울대교구장 정진석 추기경 주례로 축복식과 현판식을 갖고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 한국 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 회장(1992~96년 9·10대)을 역임한 이관진(베드로, 80) 샤프전자 회장이 설립한 환주복지재단은 이 회장이 출연한 50억원을 기본재산으로 앞으로 △불우가정 지원 △지역사회 복지 프로그램 지원 △기타 국내외 지원 사업 등 어려운

이웃을 위한 다양한 복지활동을 펼치며, 출연금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환주'(歡洲)는 이관진 회장의 아호(雅號)로, '오대양 육대주에 고루 넘치는 기쁨'을 의미한다.

한편 환주복지재단에는 한홍순 한국평협 회장과 이윤자 서울평협 부회장이 이사로 참여하고 있다.

### 인천평협 최중우 회장 임명장 받아

지난해 12월 23일 총회에서 새 회장에 선임된 최중우 사도 요한 인천평협 회장은 1월 2일 주교좌 답동성당에서 봉헌된 세계평화의 날 미사 후 신년교례회에서 교구장 최기산 주교로부터 평협회장 인준증과 '송해봉 세레자 요한의 시복시성 추진위원회' 부위원장(위원장은 이학로 몬시뇰) 임명장을 받았다. 최중우 인천평협 회장은 인천교구 김포 고촌성당 신자로서 농업 지방공사 감리로 재직하던 후 2002년 정년퇴직했다.

### 수원평협 안병철 회장, 대리구 방문

수원교구 평협 안병철 도미니코 회장은 사무국 임원들과 함께 1월 17일 수원대리구를 방문했다. 화서동 소재 수원대리구청에서 수원대리구장 최재용 바르톨로메오 신부와 수원대리구 복음화국장 이용규 사도 요한 신부, 청소년국장 박한현 요셉 신부가 함께한 가운데 교구와 대리구의 현안과 대리구 발전을 위한 평신도의 역할 등에 대해 논의했고, 대리구장 최재용 바르톨로메오 신부님은 대리구 평협 조직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지원을 교구 평협에서 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대리구제 정착을 위해 본당

총회장들과 평신도들이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안병철 도미니코 회장은 수원대리구의 무궁한 발전을 바라며 적극 협조하겠다는 인사로 답했다. 한편 교구평협 안병철 도미니코 회장은 수원대리구 방문에 앞서 2006년 12월 성남, 용인, 안산 대리구를 방문하여 대리구장 신부님들과 교구와 대리구의 현안들을 논의하였고, 2월에는 안양대리구를 방문할 예정이다.

### 전주평협 서동호 회장 교구 사제서품식 축하

전주교구 평협 서동호 회장은 지난 1월 18일 주교좌 중앙성당에서 거행된 사제서품식에서 축하의 인사를 나누었다.

새 사제 7명과 부제 3명이 서품된 이 자리에서 서동호 회장은 새 사제들에게 축하금을 전달하고 “사제라는 직분에서 나오는 권위와 함께 새 신부님들의 선한 인품과 성품 그리고 예수님을 닮은 모습에서 우러나오는 권위로서 신자들을 사목하여 주시도록 오늘 서품성구를 평생 가슴에 담고 반추하여 사시도록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 한국ME 조덕·이명숙 부부, 세계 평의회 참석

한국 ME 대표 겸 아시아대표 조덕·이명숙(서울대교구 문정2동 본당) 부부는 2월 7일부터 1주일간 과테말라에서 열린 월드와이드 메리지 엔카운터 (WWME) 세계평의회 참석했다.

“한국 ME운동이 세계 ME에 많은 영향을 주

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고도 자랑스러웠습니다”며 소감을 밝힌 조덕·이명숙 대표 부부는 “이제 막 ME가 진출한 중국과 ME운동이 전무하다시피한 중동지역의 아랍에미리트연방이 새 회원국으로 떠오르면서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아시아 ME에 특히 한국이 모델이 되고 있다”며 각 대륙 대표단으로부터 많은 질문을 받았다고 말했다.

전세계 90개 회원국을 두고 있는 WWME는 이번 세계평의회에서 ▲주말후 부부들이 본당 공동체(쉐링)에 더 많이 참여하는 방안 ▲‘폭넓은 대화’ 소개 ▲ 2008년 ME 세계대회 일정 및 대륙별 주말후 프로그램 공유 등에 대해 논의했다.



▲ ME아시아 대표팀 조덕·이명숙부부, 데이빗 조지(인도 가톨릭대 총장)신부(뒷줄 오른쪽부터)가 세계평의회 기간 중에 세계대표팀 데이빗·브로니 레아 부부와 존 레이트 신부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이석우 위원 PBC 보도국 부국장에

서울대교구 평협 민족화해분과위원회 위원이자 가톨릭언론인협의회 부회장인 PBC 평화방송 이석우(클레멘스) 보도위원이 지난 3월 2일자로 PBC 보도국 부국장으로 승진 발령받았다.